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말씀>

기뻐 뛰어라

[시대 성경]

깨닫고서 기뻐 뛰어라.

그래야 힘들지 않게 모든 사명을 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기뻐하며 부지런히 뛰어야 더 얻고 힘나서 행하여,
매일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리라.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하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주는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도 주를 따라 말씀이 생활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주를 좇는 삶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주일말씀>에 이어서 ‘기쁨 뛰라는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 <본문 말씀>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기쁨 뛰어야,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 하셨습니다.
- 기쁨하기만 하지 말고,
〈그 기쁨〉으로 힘을 내서 부지런히 ‘할 일’을 하며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얻을 것’을 얻게 됩니다.
- 기쁨 뛰어야,
-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악〉을 이기게 됩니다.
-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기쁨의 삶〉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은 기쁨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얻는 것〉이 있어야 기쁘고, 〈자기 소원〉이 이뤄져야 기쁩니다.
-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육적〉으로 얻었으면, ‘육적인 세계’에서만 기쁩니다.
- <육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성’이 없으니,
‘곤고한 기쁨’에 불과합니다.

-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과 <혼>이 있는 고로
<영혼>이 기뻐야 근본적으로 기쁩니다.
- 사람이 <얻을 것>을 얻었어도,
<마음>과 <생각>이 기뻐야 근본적으로 기쁘듯이,

<육>으로만 기뻐서는 ‘기쁨’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영>이 기뻐해야,
‘인생의 모든 곤고함’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기뻐합니다.
- <기쁨>은 크게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자기로부터 오는 <자체 기쁨>입니다.
둘째,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기쁨>입니다.
-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아도 <자체 기쁨>도 누리고,
<상대로부터 오는 기쁨>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 <상대적 기쁨>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근본>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기쁨의 본체’입니다.
그에게는 ‘어둠’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다.

-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기쁨거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거리>는 ‘시대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만,

<이 시대 최고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 <주>와 더불어 ‘삼위’와 일체 돼야 기쁘고,
‘그 뜻’을 행해야 기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부터 오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창조 목적을 이룬 기쁨>입니다.

‘이 외에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얻고 기뻐하고,

<하늘 황금천국>에서도 얻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 종교역사 <구약>에서 <신약>까지,
<신약>에서 <성약역사>까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거리>는

‘하나님이 땅에 육신을 쓰고 나타나심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메시아>를 쓰고 나타나시고,

<선지자>나 <중심인물들>을 쓰고 나타나셨습니다.

-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면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리>와 <양>과 <표범>과 <송아지>와 <사자>의 비유를 들면서,
이 짐승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 살듯이,

메시아가 오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기쁨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 신약시대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기쁨의 이상세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주권권 안>에서는 ‘이상세계’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불신하는 주권권>은 싸움과 다툼과 고통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더 어두운 세계’가 됐습니다.

-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 사명자>를 보내서
그를 쓰고 역사하며 ‘이상세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고 이단시한 자들’은
‘소망’이 끊어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 여러분도 섭리사에 전도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다면,
<영원한 기쁨>도, <소망>도 없고,
<육신이 누리는 기쁨>도 지금보다 덜했을 것입니다.

-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산 자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희망의 말씀’을 해 주시며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 〈영〉도 〈육〉도 ‘사망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없으니, 기쁨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획대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구약〉에서도 ‘구약의 차원’으로 이뤄 왔고,
〈신약〉에서도 ‘신약의 차원’으로 이뤄 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성약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휴거역사’를 맞이하고,
그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 〈휴거〉는 종교 역사상 ‘최고의 소망’이자 ‘이상(理想)’입니다.

〈휴거〉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된 영’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땅에서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천 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희망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삶’ 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최고의 이상세계〉를 주셨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떤 다른 기쁨거리’ 가 있겠습니까.

- 깨달아야 - 〈기쁨〉이 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기가 구한 것이 정말로 좋은 보화라면
‘그것이 보화라는 것’ 을 깨달아야 기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큰 뜻〉을 이루고 살아도,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을 받고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기쁨입니다.

-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기쁨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급한 대로
〈물질의 기쁨〉이나 〈명예의 기쁨〉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좋은 집에 사는 기쁨〉이나,
〈자기가 원하는 각종 것들을 얻는 기쁨〉을 중심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기쁨〉에는 ‘한계’ 가 있고,
‘곤고함’ 과 ‘허무함’ 이 따릅니다.

- <가장 크고 무한한 기쁨>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삼위가 원하는 것을 해 드리고 사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어 얻게 됩니다.

- 그러므로
 먼저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기쁨>을 얻으려고 쫓기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천 년 이상세계 역사>에 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는 기쁨>,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사는 기쁨>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 이상 없는 기쁨>이요,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환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얻어지는 실체 기쁨>입니다.

- 반면, <세상의 기쁨>은 ‘사망권의 기쁨’이요,
 누렸어도 후에는 ‘무(無)로 끝나는 기쁨’입니다.
- 선생님이 세상의 재벌들을 만나보면,
 <육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만 얻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 으로 섬기며 살라고 해도,
자기는 〈육적인 기쁨〉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영혼〉은 ‘흑암’ 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기쁨〉도 ‘무(無)’ 로 끝나게 됩니다.

〈사망의 어둠의 세계〉에 가서 보면,
‘육신으로 누렸던 과거의 기쁨들’ 이 일순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 가난하게 살아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고 사는 자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토록 기쁘게 살게 되는 것’ 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 〈하나님 주권권 밖〉에도 ‘기쁨’ 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육에 속한 일시적인 기쁨들〉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사라지고 맙니다.

- 〈하나님의 주권권 안〉에서
〈삼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않고서는
‘기쁨을 누린다는 말’ 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 〈세상의 육적인 기쁨〉은 ‘매직쇼를 보는 기쁨’ 에 불과합니다.
매직쇼의 내용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속임수네.” 합니다.

-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참으로 ‘허무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100년>을 살다가 죽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선생님에게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가 ‘3건’ 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자는 50대, 어떤 자는 60대, 어떤 자는 70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죽을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 이와 같이 <인생>은 ‘일순간’ 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완벽하게 상속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다.

- <선생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

“내가 죽는 것은 원통하지 않은데,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억울하다.” 라고 했습니다.

- 시대를 깨달으면,

<복음을 늦게 접한 것>을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인식>이 다른 데 있을 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모두 <시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감사하며 기뻐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보다 많은 것들을 겪고, 성장도 했으니,
‘더 기뻐 뛰어야 될 때’입니다.

모두 금주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서
<기쁨의 역사>를 잡고 가야 됩니다.

- 개인적으로나 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최첨단의 기쁨>을 겪기 전에는 먼저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는
먼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 선생님도 오늘날이 있기까지
<눈물겨운 사생애 기간>이 있었고,
<인생의 곤고함과 걱정과 근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시대말씀>을 깨달으니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대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펴니까,
‘생명들’을 얻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게 해 놓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상세계>를 만나기까지는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 천 년 혼인 잔치역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 종교 역사적으로도
<이 시대 천 년 이상세계 역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긴긴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 시대 성약역사>가 시작되기도,
10년, 20년, 30년, 40년 커 와서야
‘오늘날의 기쁨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눈물겨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모시고,
‘당세의 혼인 잔치역사’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 <성약 천 년 혼인 잔치역사>는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니고,

‘삼위일체가 창조 목적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 <구약 때>부터

‘각종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각종 것’을 겪으며 성장하다가,
결혼해서 <사랑의 이상세계>를 누리게 되듯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서 <성약역사>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차원을 높여 올라온 이상세계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살게 됐으니,

얼마나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 <성약 섭리역사>에 왔어도,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신약살이 하듯 산 자들>은
또다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 ‘이상세계’를 상실하고, ‘기쁨’도 상실했습니다.

-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제대로 깨닫기’입니다.
둘째, ‘제대로 살아가기’입니다.
셋째, ‘제대로 가르쳐 주기’입니다.

그래야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부활된 이상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 모두 <심령의 부활>, <정신적인 부활>을 이뤄야,
<시대 신부>로서 ‘더 이상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요? <기쁨을 누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 다 해 봤는데, 별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 즐기면서 행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 사람들은 <마음>이 ‘음부와 무저갱’ 같아서,
하나님이 <기쁨거리>를 주셔도 계속해서 잊고,
끝없이 바라기만 합니다.

- <천국>은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쁨’이 좌우됩니다.

- <뇌>는 같은 것을 두고
‘기쁘게 생각’ 하면 기쁘고,
‘슬프게 생각’ 하면 슬프고,
‘불안하게 생각’ 하면 불안하고,
‘화나는 생각’ 을 하면 혈기가 납니다.

이는 마치 <음식>에 ‘소스’를 바르는 대로
<음식 본연의 맛>이 좌우되는 것과 같습니다.

- <뇌의 생각>은 ‘음식의 소스’와 같습니다.

<어떤 소스를 바르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좌우되듯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뇌’가 자극을 받고 시동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극적인 기쁨거리>를 주셨어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거리>에 감사 감격하고 고마워해야,
항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살게 되고,
그래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모두 덮어집니다.

- 하나님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잘해라.”
“<생각>이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과 일체 돼야,
<그 생각>에서부터 ‘기쁨’이 옵니다.

- <기쁨의 시작>은 ‘삼위와 주와 생각 일체’입니다.

- <삼위와 주의 생각>과 일체 돼야,
<자기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불안>과 <초조>와 <자기 주관>으로 흘러갑니다.

-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도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 <자기 사명의 기쁨>입니다.

<시대 신부의 사명>, <증거하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관리하는 사명> 등

<자기 사명>을 깨닫고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 <생명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기쁨>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다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영’이 영원히 빛나게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 선생님도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도〉를 안 했으면, ‘이상세계’를 펴지 못했습니다.

- 개인도, 각 교회도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전도해야,

〈자기 희망거리, 기쁨거리〉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 금주에는 서로 모여서 〈기쁨〉에 대해 연구도 하고,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무엇이 기쁜지’ 이야기도 해 보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지’
서로 의논도 하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해야, 더욱 깨닫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은 더욱 깨닫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